

우주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 재사용 준비 완료

우주 정의훈_02)368-6170_uihoon0607@eugenefn.com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 재사용 준비

오는 4 월 17 일(현지 시각), 블루 오리진(Blue Origin)은 대형 재사용 로켓 뉴 글렌(New Glenn)의 세 번째 발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발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해 11 월에 한 차례 사용된 1 단 부스터를 재사용하는 첫 발사 시도이기 때문이다. 뉴 글렌은 2025 년 11 월 두 번째 비행에서 NASA 의 화성 탐사선을 싣고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발사 9 분 후 1 단 부스터를 약 600km 떨어진 해상 플랫폼에 수직 착륙시키며 재사용 기술의 가능성을 증명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발사에서 부스터 재사용에 성공할 경우, 블루 오리진은 스페이스 X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형 궤도 로켓의 상용 재사용에 성공하는 기업이 된다. 또한 최초 착륙과 재사용 사이의 간격은 불과 5개월로, 스페이스 X가 최초 착륙 후 첫 재사용에 13 개월 이상을 소요한 것을 크게 단축시킨 결과가 된다. 이는 발사 비용의 획기적 절감으로 이어지며, 블루 오리진이 현재 스페이스 X 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재사용 발사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전기가 될 전망이다.

미 우주군(Space Force)은 최근 블루 오리진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 내 발사 복합시설 SLC-14 개발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는 뉴 글렌의 발사 역량이 플로리다에 이어 서부 해안으로도 확장됨을 의미하며, 블루 오리진의 발사 인프라 확충에 가속이 붙고 있음을 보여준다.

블루 오리진의 발사 역량 강화는 아마존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LEO(舊 Project Kuiper)' 확장과 직결된다. 아마존은 현재까지 241 기의 1 세대 위성을 배치했으며 최종 목표는 3,232 기에 달하는 위성 군집을 완성하는 것이다. 대규모 위성 군집 구축에 있어 발사 비용과 발사 주기는 핵심 변수로, 블루 오리진이 뉴 글렌의 재사용 사이클을 안정화할 수록 아마존 LEO의 배치 속도 역시 빨라질 수 있다.

아마존은 최초 서비스를 2026 년 중반으로 목표하고 있으며, 항공 연결 서비스의 경우 더 조밀한 위성 군집이 필요한 만큼 이후 단계에서 제공 예정이다. 또한 아마존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하드웨어 준비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아마존은 중소형 지역 항공기부터 광동체 대형기까지 모든 기종에 호환 가능한 전자 조향 방식의 'Amazon Leo 항공용 안테나'를 공개했다. 해당 안테나는 다운

한주 간 주요 뉴스

[중국, 첸판-궈왕 메가콘스텔레이션 위해 장정 로켓 2회 발사 실시](#)

[Portal Space Systems, 우주선 개발 가속 위해 5,000만달러 조달](#)

[미 우주군, 18억달러 규모 GEO 감시 프로그램에 14개사 선정](#)

[오리온, 아르테미스 2 임무 성공적으로 마치고 착수](#)

[Rocket Lab, iQPS 추가 발사 3건 계약 수주](#)

[Sophia Space-Kepler, 궤도 컴퓨팅과 광통신 결합 추진](#)

[Phantom Space, 열관리 계약으로 궤도 데이터 경쟁 우위 모색](#)

[L3Harris, 골든 돔 사업 수주전 위해 선투자 진행](#)

로드 기준 초당 최대 1Gbps, 업로드 기준 400Mbps의 속도를 지원한다. 이는 스타링크 항공 서비스의 다운로드 310Mbps, 업로드 44Mbps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기술 사양 면에서 스타링크를 압도한다. 이미 젯블루(JetBlue)는 2027년부터 약 300대 항공기 중 일부에 아마존 LEO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델타항공(Delta Air Lines) 역시 2028년부터 초도 500대 항공기에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아마존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인프라를 완성하기 위한 대형 인수합병(M&A)도 확정지었다. 아마존은 위성통신 기업 글로벌스타(Globalstar)를 약 99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종결은 규제 승인과 위성 개발 조건 충족을 전제로 2027년으로 예상된다. 글로벌스타는 지상망과 위성망을 혼용할 수 있는 n53(Band 53) 주파수 대역을 포함해 전 세계에 걸쳐 할당된 저궤도 주파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아마존이 각국 정부의 개별 규제 승인 없이 글로벌 서비스를 조기 확대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평가된다. 아마존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애플(Apple)과의 협력 역시 강화한다. 기존에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위성 긴급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던 글로벌스타 인프라를 아마존 LEO 위성망과 결합해 위성 SOS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애플 기기 연동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아마존과 블루 오리진은 각기 독립된 기업이지만, 같은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를 중심으로 저궤도 발사 역량과 위성통신 인프라라는 두 축에서 동시에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뉴 글렌의 재사용 발사 성공, 글로벌스타 인수 완료, 항공용 안테나 상용화가 맞물리는 시점에 스타링크와의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3차 발사 대기 중인 뉴 글렌(4/16)



자료: Blue Origin, 유진투자증권

뉴 글렌 부스터 랜딩 성공(25년 11월)



자료: Blue Origin, 유진투자증권

Amazon Leo 항공용 안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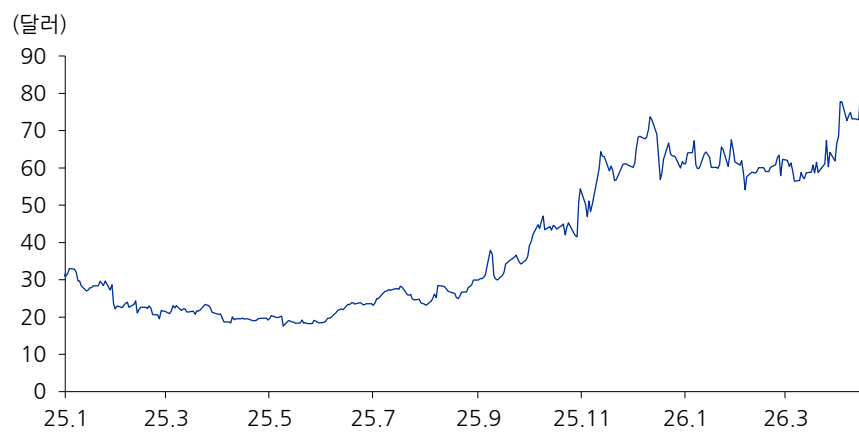
자료: Amazon, 유진투자증권

Amazon Leo 항공용 안테나



자료: Amazon, 유진투자증권

GlobalStar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 | |
|------------------|----------------------------|-----|
| · STRONG BUY(매수) |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50%이상 | 0% |
| · BUY(매수) |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이상 ~ +50%미만 | 95% |
| · HOLD(중립) |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0%이상 ~ +15%미만 | 5% |
| · REDUCE(매도) |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0%미만 | 0% |

(2026.03.31 기준)